

# 新 목포 관광 9경 즐기고 9味 맛본다

“기존 8경·5味는 시대에 뒤떨어진다” 지적 대표 경관·음식 확대...새 슬로건 만들기로

### 목포 대표 먹거리



민어회



홍어삼합



세발낙지



갈치찜



꽃게무침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한 목포시와 목포시의회가 관광객 관광 인프라 확대 등을 위해 목포 대표 음식과 절경을 확대하고, 새로운 관광 슬로건을 만들 계획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목포 5미를 9미로, 목포 8경을 9경으로 확대해 “목포 구경(求景)가서 ‘구미(口味)’ 당기는 음식 한번 맛보세”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관광객 유치 및 관광의 관광자원을 확대해 보자는 것이다.

새로운 슬로건은 관광 목포의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동음이의어 활용으로 기억하기 쉽다는 점에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목포시의회 최기동 의원은 “목포 8경 가운데 없었던 곳이 있고 어려운 한자로 돼있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친숙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관광자원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목포 8경을 선정해야 한다면 9경으로 늘려 ‘목포 9경, 구경 가세’를 슬로건으로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목포 8경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아 목포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까지 총 상금 2000만원을 내걸고 ‘新(新) 목포 8경’을 공모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출품작을 찾지 못했다.

목포 8경은 유산기암(繡山高巖), 용당귀범(龍塘歸舫), 아산춘우(牙山春雨), 학도청림(鶴島晴巖), 금강추월(錦江秋月), 입암반조(笠岩返照), 고도설송(高島雪松), 달사모종(達寺暮鍾)이다.

유산기암은 기기묘묘한 바위로 이뤄진 유달산 노적봉, 고도설송은 겨울철 고하도의 눈덮인 소

나무의 아름다운 풍경을 말한다. 달사모종은 석양이 질 때 유달산의 마당바위에서 듣는 범종의 소리를, 학도청림은 삼학도에 서 바라본 목포 내항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또 금강추월은 영산호에 뜨는 달빛, 입암반조는 갯바위의 노을, 아산춘우는 안개 낀 목포바다, 용당귀범은 고하도 기암 용머리 등을 일컫는다.

하지만 한자로 만들어진 목포 8경의 뜻이 어렵고, 사실상 사라진 곳도 있는 데다 목포대교 일몰과 목포의 춤추는 바다 분수 등 새로운 관광자원이 인기를 끌면서 신 목포 8경을 넘어 신 목포 9경을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목포시의원들은 또 목포 5미 등 대표 먹거리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목포시의 한 의원은 “21세기의 관광 트렌드는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먹거리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맛과 맛의 고장 목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현재의 ‘목포 5미(민어, 홍어, 낙지, 갈치, 꽃게)’를 ‘목포 9미’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문옥 목포시 관광경제국장은 “‘목포 구경가서 구미 당기는 음식 한번 먹어보세’는 이미 직원들 사이에서도 친근감 있고 좋은 슬로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목포시 최초로 오는 12월 열리는 ‘2015 목포 음식문화축제’를 통해 목포의 특성을 살린 목포 9미를 선정하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 목포 9경 선정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 목포 첫 음식문화축제 추운 겨울에 열자고?

가을 개최 철회 12월 연기 논란 시의회 등 “누가 보러 오겠나”

목포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음식문화축제의 개최 시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음식축제 개최의 최적기인 ‘맛의 계절’ 가을철 개최 계획을 갑자기 철회하고, 강추위 등이 우려되는 12월로 연기했기 때문이다.

목포시 도시개발 사업단은 지난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목포의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먹거리 발굴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동안 중앙시료시장 일원에서 ‘2015 목포 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에는 음식문화축제 행사 대행 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최근 업체까지 선정했다.

하지만 도시개발 사업단은 지난 13일 재생사업 코디와 시장 상인들과 회의 이후 갑자기 목포 음식문화축제 개최 시기를 12월 초로 변경했다. 사업단은 “10월 말 개

최는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매년 12월 열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문화 축제와 연계하는 상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애초 사업단은 10월 마지막 밤이라는 아이টে임을 활용해 ‘10월의 마지막 밤, 음식문화축제와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펼 계획이었지만, 결국 무산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주 비빔밥 축제를 비롯한 인천 음식문화축제, 세계 음식문화축제, 수원·마포·익산·창원 음식축제 등 대다수의 음식문화축제가 9~10월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12월 개최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추운 겨울철에 음식을 주제로 축제를 개최할 경우 따뜻한 음식 제공의 한계와 신선한 먹거리의 종류도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축제의 성공 개최는 화창한 날씨와 연동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운 겨울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도 한계가 있

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목포시의회도 부정적 시각을 내놓고 있다. 목포시의회의 한 의원은 “전국 대다수 음식 축제도 마찬가지로 음식축제는 계절에 나는 음식을 가지고 해야 성공할 수 있는데, 과연 12월의 계절 음식이 뭐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음식 축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볼거리와 함께 뚜렷한 주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의원도 “추운데 누가 얼마나 찾아오겠느냐. 단순 먹거리만으로는 동네 축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목원동 주변 일부 주민과 상인들도 음식축제를 겨울철에 개최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업단은 이 같은 반대 여론에도 이번 축제는 상인들이 주체하고 상인들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목포시, 전국 일자리경진대회 사회적기업 부문 우수상

목포시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펼쳐진 2015년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사회적 기업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에서 목포시는 사회적 기업 부문의 ‘창조적 사회적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서 목

포의 문화·역사·관광자원을 활용해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고, 창조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목포시는 ‘일자리가 있어 시민이 행복한 목포’를 시정목표로 내걸고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과 공동체중심의 일자리 확대, 사회적 기업 육성, 지역맞춤형 사업인 조선태 양플랜트 전문 인력 양성사업,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포대 창조일자리센터 지원, 중소기업 청년인턴 보조금 지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산학연관 사업 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홍을 목포시장은 “앞으로도 저소득층 및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추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몸으로 체험하며 안전습관 길러요” 23~24일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몸으로 체험하며 안전습관 길러요” 어린이 안전생활 습관 형성 및 사고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열린다.

목포시와 국민안전처가 주최하는 이번 체험교실은 미취학아동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50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체험·안전놀이 등 20여 개의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소방·교통·신변·지진·승강기·전기·식품 안전 등 안전체험을 비롯한 안전공연, 놀이안전문화, 안전통장 만들기, 지진이나 화재시 대피체험 등이 진행되며 생활안전 인형극 공연도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선진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승용차 탑승시 안전띠 착용 체험 프로그램이 신설 운영되고, ‘안전 돌고래 어등(魚燈)’을 비치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포토존도 새롭게 선보인다.

또 9개 이상 교육을 이수한 어린이를



목포시 일원에서 지난해 열린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에서 어린이들이 소방안전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목포시 제공>

대상으로 안전체험 후 느낀 점을 우산에 직접 그림으로 표현하는 ‘안전우산 만들기’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이문교육에서 벗어나 몸으로 느끼고 직접 체험하는 교육으로 진행,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는 지역 어린이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와 SNS, 일간지 등 오프라인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발송 및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농어촌공 영산강사업단, 국제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최고상

국내 품질분임조의 최강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 국제 대회에서 최고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단장 박종호)은 19일 “최근 경남 창원에서 개최된 2015년 제40회 국제품질분임조경진대회 공공부문에서 대회 최고의 상인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제품질분임조경진대회는 지난 1968년부터 아시아 품질선진 3개 국가인 한국표준협회(KSA)와 일본과학기술연맹(JUSE), 대만 선봉기업관리발전협회(PQCR)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1976년 서울에서 첫 개최를 시작으로 서울시 5회, 경남도 1회 등

국내에서 총 6회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 일본 등 14개국 257개 분임조(1373명)가 참가했으며, 영산강사업단은 ‘용·배수로 시설물 구조개선으로 사공부 적합수 감소’를 주제로 공공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박종호 단장은 “앞으로도 전 직원이 지속적인 기술혁신 노력을 통해 최우수 품질 확보의 선두주자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 명품 보성 컨트리클럽

# 국내 최초

# 골프동호회 카드 출시!!

선착순 100구좌 한정 판매

**지금부터 파격적인 혜택을 누리세요!**

무기명 1팀 - 에메랄드카드, 무기명 7팀 - 토파즈카드

대상 골프동호회

- 동창회 동호회
- 인터넷 동호회
- 골프연습장 동호회
- 기업체 동호회
- 스크린 동호회
- 기타 각종 동호회

동호회 토파즈카드

1,000만원    1일 7팀 사용가능

성수기(4월~11월) - 그린피 주중 30% / 일요일 25% 할인  
비수기(12월~3월) - 그린피 주중 40% / 일요일 30% 할인

보성CC 에메랄드카드

1,000만원    1일 무기명 1팀 사용

그린피 주중 40% / 주말 30% 할인

**보성컨트리클럽**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조성3길 338  
www.bosungcc.co.kr

상담 문의

광주사무소 062.654-0711  
보성CC 061.804-1046